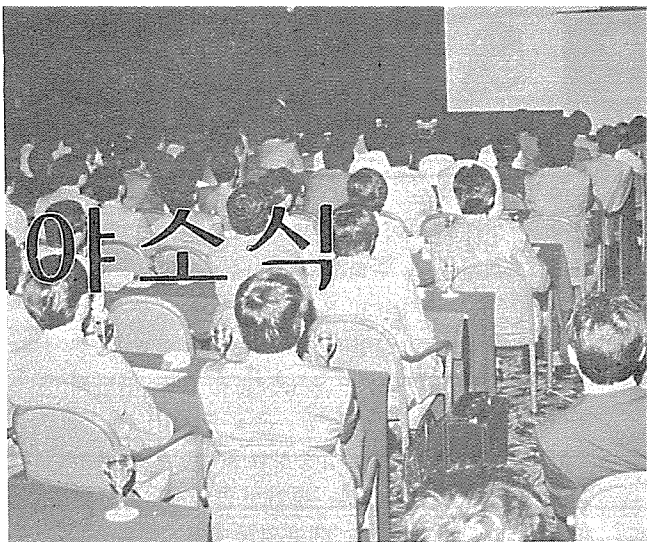


학술분야소식



◎제67차 국제치과연구학회에 한국지부임원 참석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회장 梁源植)는 26일 6월 28일~7월1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제67차 IADR총회 및 학술대회에 임원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梁源植회장과 李種旰직전회장, 鄭鍾平총무이사(이상 서울치대) 및 가운데슬러 李起受교수(경희치대)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한국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李種旰 직전회장의 「유해자극에 의한 악이복근의 근전도 변화와 신경전도에 미치는 Capsaicin유도체들에 영향」에 대한 논문을, 정중평총무이사가 “초기 유년형치주염의 질환진행에 관련된 요소에 대한 추적조사”에 대한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다음 총회는 대 내외적인 여건불비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총회장에서 梁源植회장을 위시한 한국대표단〉

다음은 동학회에서 발표한 李種旰교수와 鄭鍾平總務가 發表한 內容의 抄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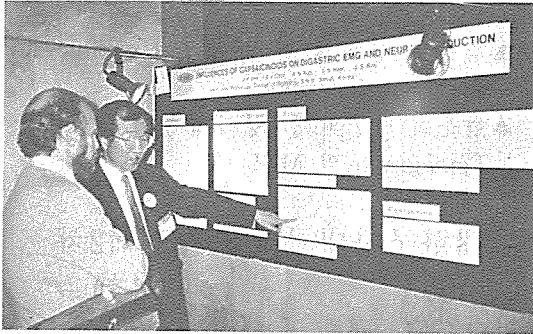
유해자극에 의한 악 이복근의 근전도 변화와 신경전도에 미치는 capsaicin유도체들의 영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리학교실

이중훈* · 최동주 · 김중수 · 함진숙 · 김경년

이 실험은 capsaicin유도체들의 진통기전을 밝히고 각 유도체들의 작용기전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토끼를 nembutal로 마취하고, 약물투여를 위하여 양측의 하치조 신경을 노출한 다음, 구강점막과 악이복근 전복에 선전극을 삽입하여 유해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악이복근 근전도를 검사하였다. Dihydrocapsaicin(DHC)과 paradol이 실험에 사용되었는데, 한쪽에는 vehicle(10% Tween 80, 10% ethanol, 80% 생리적 식염수)만을 적용하였고 다른 한쪽에는 vehicle에 1.5%(w/v)용해된 capsaicin 유도체를 적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약물이 신경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양측의 복재신경을 분리하여 3개의 조직 pool을 형성하여, 원심측은 신경자극에, 가운데는 약물적용에, 근심측의 것은 활동전위 기록에 이용하였다. C신경섬유를 충분히 흥분시킬 수 있는 크기로 자극하여 활동전위를 얻었으며 악이복근 근전도와 함께 약물투여전, 약물투여후 30분, 약물제거후 30분, 60분의 경우로 나누어 magnetic tape recorder에 기록하였다.

DHC를 하치조에 적용한 경우, 악이복근 근전도의 크기나 잠복기에 별 영향이 없는 반면 paradol을 적용한 경우는 근전도의 크기가 감소했다. 또한 활동전위에 있어서는 paradol이 C신경섬유와 Aδ 신경섬유의 크기나 전도속도 모두를 감소시킨 반면, DHC는 단지 C신경섬유의 전도속도와 크기만을 감소시켰다.



<포스터 발표장에서 참가회원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李種昕교수>

초기 유년형 치주염의 질환 진행에 관련된 요소에 대한 추적조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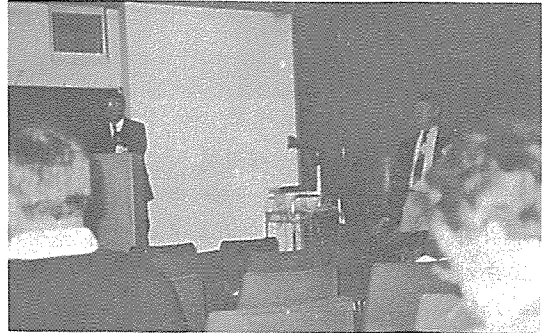
정종평* · 강창권 · 손성희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유년형 치주염의 질환 진행과 관련된 요소를 평가하고 추적 조사하는데 있다.

9명의 국소유년형 환자의 제일대구치의 근심치주낭에서 치은출혈지수, 치태지수, 치은열구액, 치조골 흡수와 부착상실을 측정하고, 처음과 9개월후의 세균형, 주로 나타나는 배양가능한 세균이 배양, 치주조직을 파괴하는 세균에 대한 항체수준과 다형핵백혈구의 화학주성억제 등의 미생물학 및 면역학적 조사를 하여, 9개월 동안의 치조골의 소실정도와 부착상실을 기준으로 9명의 환자를 진행군과 비진행군으로 구분하여서 관찰한 결과, 혐기성 세균과 스피로헤테라의 증가는 치조골 흡수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A. actinomyces comitans는 비진행군보다 진행군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 다형핵백혈구의 화학주성억제는 두군에서 같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치

조골 소실을 기준으로 하여 비진행군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에 대한 혈청 IgG가 진행군에서 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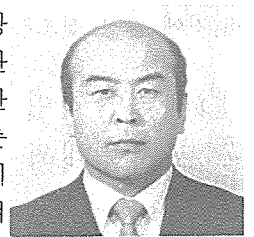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결과 A. actinomycetemcomitans의 감염과 낮은 항체역가 수준이 초기 유년형 치주염의 진행에 관련된 중요 요소로 추정됨을 암시한다.



<논문을 발표하는 鄭鍾平교수와 社長인 美國에모리대 부학장>

◎국민구강보건 연구소 제2회 심포지움개최

국민구강보건연구소(소장 김중배) 제2회 구강환경관리에 관한 심포지움이 지난 6월 26, 27양일간에 걸쳐 춘천소재 세종호텔 회의실에서 연구소회원을 위시하여 학계에서 김남규 원광치대 <所長 金鍾培교수> 학장, 박기철 인디애나치대교수, 윤정원 수원대교수와 관련업체에서 부광약품공업(주), (주)럭키, (주)롯데, 태평양화학 그리고 우제승(국립보건원 약품부 연구원) 이경웅, 김만영(소비자 보호원)등 다수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개최된 심포지움 내용을 감추려보면

제1주제 : 세치제 개발에 있어서 ① 세치제 개발 연구경향에 대하여... 인디애나대 박기철 교수가 ② 세치제에 관한 광고사의 문제와 개선방향... 소비자 보호원 김만영 선생이 각각 주제를 발표하였고,

제2주제 : 구강환경관리에 대하여 ① 치면세



〈사진은 동 심포지움 장면〉

균막형성억제천연물을 배합한 구강병예방제 개발 경향에 대하여... 유정원 수원대학교수가 ② 구취의 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이광희 원광대학교수가 각각 발표하였고,

제3주제 : 비우식성 식품개발에 대하여 ① 비우식성 식품개발 방향에 대하여... 박기철교수가 ② 자당과 Xylitol 및 aspartame용액 양치가 법랑질 표면 경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김동기 조선대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김중배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는 다음 예방치학 발전향상에 많은 수확을 견고 2 일간에 걸친 심포지움을 모두 마쳤다.

◎대한악악면 성형재건학회 89심포지움개최

대한악악면성형재건의과 학회(회장 李義雄)는 6월 24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Image in Maxillofacial region(악안면 영역에서의 이미지)」를 <회장 이의웅교수> 주제로 89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심포지움에서는 「구강외과영역에서의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MRI(핵자기 공명촬영법)를 이용한 구강외과영역에서의 암의 진단과 Angiography(X선특수조영법)를 이용, 방사선학적으로 혈관종을 치유하는 방법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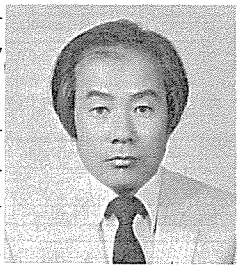
이날 심포지움의 연자 및 연제는 다음과 같

다.

- ▲ 정 훈(한림의대부속 강동심심병원: 치과) - Arthrography
- ▲ Ishi Sunichi(동경의과치과대학: 제1구강외과) - 악안면외과영역에서의 초음파진단(Sonography)
- ▲ 홍성운(원자력병원: 핵의학과-Scintigraphy)
- ▲ 김동익(연세의대: 방사선과) - Sialography와 Angiography
- ▲ 한문희(서울의대: 방사선과) - Computer Tomography와 MRI

◎대한구강내과학회 '89 제2차 심포지움 및 임시총회 개최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정성창)는 6월30일 오후 7시 그린그래스호텔에서 열린 '89년도 제2차 학술집담회 및 임시총회에서 금년부터 신인학술상을 제정 시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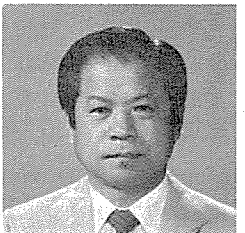


〈회장 정성창 교수〉

매년 발표되는 구강내과학회관련 논문이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신인 학술상은 학회에 보다 학문적인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심사위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집담회에서는 서울치대 이승우교수(구강진단과)의 「출혈성노인의 진단-전신적질환을 중심으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가칭」대한치과심미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대한심미치과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소재 라마다르네상스호텔 Ruby room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대한치과의사 협회 李鍾守 회장, 구강보 <초대회장 李在賢學長>



건협회 金周煥이사장, 아태조직위원장 丁東均 교수 및 일본 심미치과학회 도루 마쓰오선생의 임원을 위시한 발기인등 150여회원이 참석하였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받고 있는 李在賢 단국치대학장은 초대사를 빌어 학회창립의 당위성과 창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심미치과학은 치과의학 목적에 있어서 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최근에 양질의 재료의 개발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모든 치과임상가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1987년 9월 한국심미치과 연구회로 시작되어 많은 연수회를 거듭했고 현재 120여명의 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700명의 회원을 가진 일본 심미치과 학회와 싱가포르 심미치과학회와 긴밀한 유대관계 하에 12개국을 망라한 아세아-태평양 심미치과 학회(Asian-Pacific Academy of Aesthetic Dentistry)를 결성하도록 결정하고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제1회 아세아-태평양 심미치과학회를 개최기로 결정하였고 92년에는 한국에서 우리회가 주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심미치과 연구회가 더욱 발전을 기하고 본연의 학회로 발전하고자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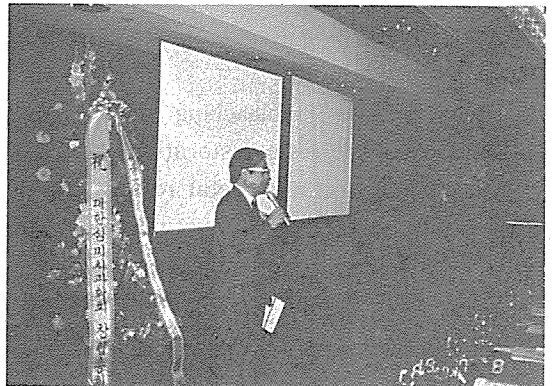
이어 李鍾守회장은 심미치과학의 연구와 학회참여에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요지의 축사가 있는 다음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철위교수와 도루 마쓰오선생의 강연이 있었는데 그 연제는 다음과 같다.

- 김철위교수(서울대 치대 치과재료학교실)
Application of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in Posterior Teeth.
- 도루 마쓰오선생(일본 심미치과학회 학술이사)
 - New age dentistry-Esthetics
 - P.L.V-new technic
 - Case Presentation
 - The Future of Esthetic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제정과 임원선출이 있었

는데 전관초안을 토의, 이를 확정 짓고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李在賢 발기인 회장을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새로 발족한 대한심미치과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이 재 현
부 회 장	최 목 균
총무이사	김 석 균
재무이사	송 요 선
학술이사	고 석 훈
국제이사	박 인 출
공보이사	김 재 영
편집이사	이 근 우
감 사	이 기 택
감 사	이 수 인



〈사진은 창립총회 및 학술강연 장면〉

또한 심미치과학회에서는 심미치과학의 학문적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심미치과학이란 최근 구미에서는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치아우식증의 감소 및 환자의 미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안모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아의 심미적 치료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우기 최근 10여년 동안 재료와 술식의 눈부신 발달은 기능적으로 안정되고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치료를 가능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추세는 뚜렷하여 심미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적절히 대처해야 할 입장이다.

안모의 아름다움은 넓은 의미에서 심미치과, 성형외과, 화장술 등 많은 전문분야가 관계할 수 있으며 그중 심미치과학은 보철, 교정, 보존, 구강외과, 치주 등 여러분야와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변색된 치아의 bleaching 술식 및 재료
2. Composite resin restoration
3. Esthetic ceramo-metal restoration
4. Full mouth reconstruction시의 심미적인 관점
5. Porcelain Laminated Veneer crown
6. 교정치료시의 심미적인 회복(안면부 미의 개선)
7. 치과의사와 기공계통의 심미적인 고려
8. Patients의 심미적 management
9. Cosmetic grinding
10. Porcelain과 composite resin restoration시의 color의 개념
11. Glass Ionomer cement 등의 심미적인 material의 연구 및 개발
12. 치주치료후의 gingival retraction시의 심미적인 회복」

◎「가칭」대한미형치과학회 학술 집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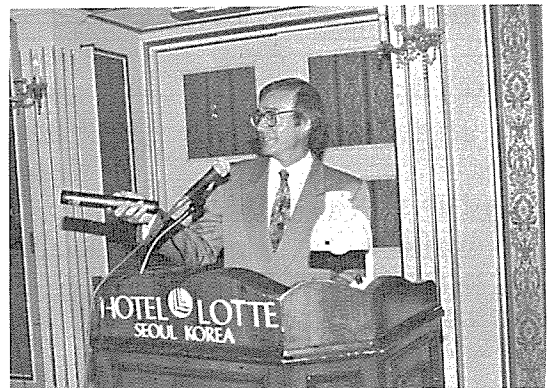
假稱 大韓美形齒科學會(회장: 정재영)는 지난 5월 27일·28일 양일간 「DR. CRAVEN KURZ 초청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대학교수, 학회회원, 일반회원 등 전국각지에서 7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관심깊게 집행되었다.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에 따라 미형학회를 올해 가을 또는 내년쯤해서 TYPDONT COURSE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구미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LINGUAL ORTHODONTICS가 한국에 정식 소개됨에 따라 성인교정의 가능성이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양일간에 걸친 강의에서 연자는 ADVANCE BONDING, LINGUAL APPLIANCE, REPROXIMATION, CASE PRESENTATION, MECHANICS, LAB PROCEDURE 등 LINGUAL ORTHODONTICS 전반에 관해 상세히 발표했다.

특히 ADVANCE BONDING의 개념을 많이 개선시킨 것이었으며, DEEP OVERBITE와 OPEN BITE의 치료가 하이라이트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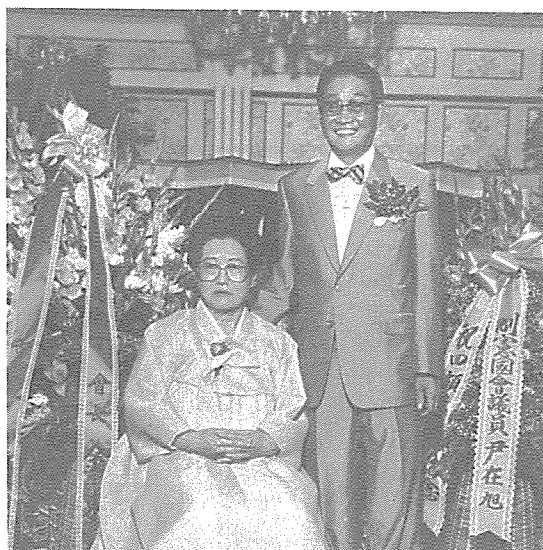


〈Dr. Craven Kurz의 강연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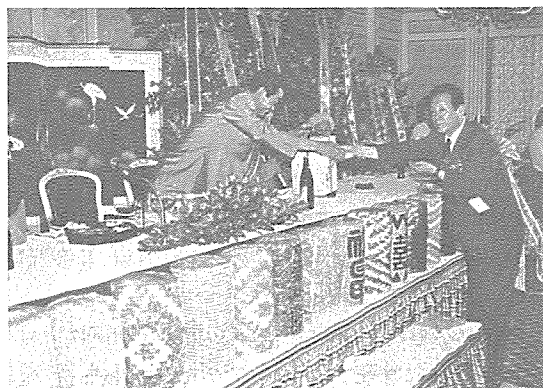
知山 金東順박사 古稀紀念 回顧錄 獻呈 및 古稀宴

서울대치대학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을 역임하고 서울흑석동에서 영신치과의원을 개원 하면서 현재 한국치정회 및 한국구강보건협회 회장으로 在任中인 知山 金東順박사의 회고록 헌정 및 고회연이 지난 7월1일 삼정호텔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萬壽無疆과 壽福康寧을 비는 동료 및 선후배 치과의사, 제자 그리고 가족 친지등 600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고회연에는 대한구강병리학회(회장 조기호)와 서울치대 구강병리학교실 동문회(회장 김현풍)와 가족이 주관이 되었는데 먼저 가족대표 인사, 치협회장이종수 박사, 치전 동기동창인 선덕영박사, 예산농업 동기동창인 심현직 저의원의 축사가 있는 다음 “古稀를 맞은 나의 回顧”의 회고록 헌정이 조기호회장의 헌정사, 박운수박사에 의한 회고록 증정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가족, 친지, 제자의 獻壽와 金東順박사의 내빈에 대한 인사를 끝으로 고회연을 성대히 마쳤다.



〈古稀宴會場에서의 知山 金東順 博士 内外分〉



〈古稀紀念 回顧錄을 獻呈하는 朴允秀박사와 趙幾鎬회장〉

古稀를 맞은 나의 回顧



大韓 口腔 病理 學會
서울 大齒 大口腔 病理 學 同門 會